

2023. 6. 12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

관광정책과장	조 성 호	2133-2805
관광협력팀장	함 혜 정	2133-2818
담 당 자	이 관 현	2133-2822
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	최 선 혜	2133-5530
소상공인정책팀장	김 명 선	2133-5532
담 당 자	오 승 백	2133-5190

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5매

## 이태원 상권 회복세 뚜렷, 6월 이태원 거리 '희망의 빛' 밝힌다

- 지난 3월 발표한 「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」 이후 이태원 지역 유동인구카드매출액↑
- 오세훈 시장 '회식 챌린지' 참여, 문화 공연·전시 프로그램,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대책 마련
- '서울페스타2023'과 연계한 '필 더 리얼 이태원' 행사,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호응 받아
- 서울시 X 용산구, 6월 25일(일)까지 녹사평역 광장~이태원로 일대 '이태원 빛의 거리' 조성

서울시는 지난 3월 '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' 발표 이후, 5월 이태원 지역의 유동 인구와 매출액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.

○ 이태원 1동의 5월 유동 인구(KT 통신사 기준) 통계에 따르면, 유동 인구는 작년 10월 4주 차 대비 75.6%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. 유동 인구는 올해 2월 71.9% 수준에서 3월 72.6%, 4월 74.9%, 5월 75.6%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.

- 이태원 1동의 5월 매출액\*(신한카드 기준) 통계에 따르면, 작년 10월 4주 차 대비 76.3%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다. 매출액은 올해 2월 52.0% 수준에서 3월 98.2%, 4월 93.4%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, 5월은 76.3% 수준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상승세는 이태원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발행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 \*신한카드 매출액 및 상품권 매출액 합산
-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이태원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3월, 2차례에 걸쳐 특별발행한 것으로 총 326억 원이 판매되었으며, 5월 말 기준으로 180억 원이 결제됐다.
  - ▶ 1차 상품권은 10% 할인을 적용해 판매 후 사용 금액의 10%를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며, 2차 상품권은 20% 할인을 적용해 판매했다.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.
- 그간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이태원 지역 방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태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·공연·전시프로그램을 운영했다. 또 상권 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, 상가친목회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져 현장 중심의 상권 회복 대책을 내놓았다.
  - ‘이태원 지역 일상 회복 대책’은 용산구의 ‘이태원, 다시 봄’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이태원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상처를 회복하고, 상권 살리기를 통해 이태원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·용산구의 종합계획이다.
  - 문화·공연·전시 : ▲ 서울시립교향악단·세종문화회관 주관 실내 음악회 총 3회 (3.18.~4.7.) ▲ 이태원·한남동 일대 버스킹, 전시회 총 8회(2.25.~4.9.) ▲ 치유·위로·상생 음악회 총 8회, ‘위로와 희망’ 신진예술인 작품전시(4.8.~5.27. 녹사평역) ▲ 「이태원 앤틱&빈티지 페스티벌」 (5.11.~14. 이태원 앤틱가구거리)

- 소상공인 지원 : ▲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판매 (1차 1.10. 2차 3.8. 총 326억 원)  
▲ 저금리(0.8%~2.0%)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('22.11.25~'23.6.5, 총 388건, 145억 원), ▲ 「EAT!서울, EAT!태원」 프로젝트(5.8.~19.)
-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. 지난 4월 오 시장은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한 '회식 챌린지'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태원 세계 음식 거리를 찾았다. 오 시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미셸 원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와 함께 배우 최불암, 방송인 김태균 등 각계 유명 인사를 지목했다. 원트럽 대사는 지목받은 후 이태원에 있는 한 아일랜드 펍을 찾아 성공적으로 챌린지를 진행했다.
- 지난 5월에는 '서울페스타 2023'과 연계해 이태원 지역 녹사평역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과 참여형 전시·체험프로그램 부스인 '필 더 리얼 이태원(Feel The Real Itaewon)'을 운영해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.
  - '필 더 리얼 이태원'은 다양한 세계문화가 연결된 이태원 관광특구의 특색을 반영하여 앤틱가구 작품전시, 앤틱소품만들기, 세계문화체험, 세계음식을 주제로 한 포토존이 운영됐다.
  - 서울페스타2023 '서울컬처스퀘어(광화문광장)' 내 K-드라마 체험존에 이태원클라쓰 체험프로그램과 이태원 관광특구 미션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이 이태원을 방문했다.



전시·체험부스(녹사평역)



미션투어(광화문)



이태원클라쓰 체험(광화문)

- 또한 서울시는 지난 3월, 이태원 상권을 ‘2023년 로컬브랜드 상권강화 사업’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으며, 2025년까지 최대 15억 원을 투입하여 이태원 상권을 경쟁력 있는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.
  
- 서울시는 ‘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’의 일환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을 추진, 이달 용산구에서 주최하는 ‘이태원 빛의 거리, 별 헤는 밤’ 행사를 후원해 지역 상권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. 행사는 녹사평역 광장부터 이태원으로 일대에 경관조명 연출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.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준비해 관람객이 오감으로 빛의 거리를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. ‘이태원 빛의 거리, 별 헤는 밤’은 6월 25일(일)까지 진행된다.
  
-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“이태원 지역 일상 회복 대책 이후 이태원 지역 상권은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,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”라며 “이태원 지역이 일상을 회복하고, 관광명소로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**참 고**

**이태원 빛의 거리 '별헤는 밤' 현장 사진**



빛의거리



포토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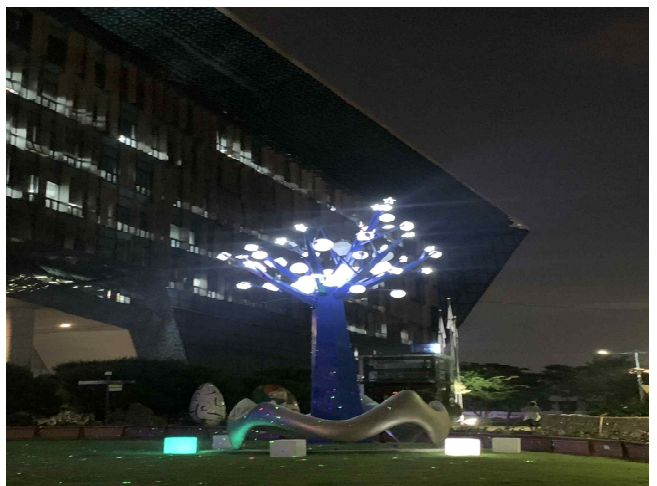
조형물



조형물



조형물



조형물